

'97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개최

모스크바서, 南北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도 13국대표 참석...南北科技협력기금 즉석모금



▲ '97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서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시 과학아카데미에서 한국을 비롯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독립국가연합 등 세계 12개국의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7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및 1997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崔亨變의장(과총회장)을 대신하여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의 개회사 낭독, 李廷彬주러시아한국대사의 축사 낭독, '96총회회의록 접수, 경과보고에 이어 토의사항 논의, 재외과협별 활동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을 주재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해외 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 '98학술회의 개최, '98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개최, 재외한국인과 학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해 토의했다.

또한 1997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에서는 鄭助英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부회장의 「남북과학

기술 협력과 통합방안」을 주제로한 기조강연에 이어 러시아의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인 Sinitsuin Boris Vladimirovich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전망」등 7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통합을 전제로

구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차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통합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남북협력기금과 연계하여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의 설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자리에서 각국의 재외한국과협 대표들은 鄭부회장의 제의에 따라 각 1백달러씩의 기금을 각출, 우선 이 기금을 증자돈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재외과협 대표들은 이날 과학기술이 모국발전의 핵심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기술 정보교환과 연구협력, 첨단기술 자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4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공동선언문 전문 별항)

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선언문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1997년 8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97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서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 진흥이 모국 발전의 핵심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기술정보 교환과 연구협력 그리고 첨단기술

자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모국의 대외경쟁력 배양이 국력 신장의 첩경임을 직시하고 고급과학기술두뇌 교류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1. 우리들은 부단히 창의력 개발을 위한 2세 교육에 정진하고 독창적인 연구 개발에 전념하여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앞장선다.

1. 우리들은 모국의 평화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북한이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동참할 것과 남북한과학기술 협력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한다.

1997년 8월 21일
'97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참가
자일동

연구개발비 예산5%로 확대추진

과기처, '과학기술인 결의문' 建議 答信서 밝혀

과학기술처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로 확대하는 방안을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반영,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와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등 5개 과학기술관련 단체와 함께 지난 7월18일 채택한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큰 다짐 결의대회」결의문에서 정부에 건의한 4가지 호소문에 대한 회신에서 밝혔다.

과기처는 또 이 회신에서 과학기술자가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명나는 연구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밖에도 △과기처를 중

심으로 과학기술관련정책 및 투자에 대한 평가체제의 강화 △탁월성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대학·대학원의 지속적 개혁 △국내외 박사후연수제도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해외고급 과학두뇌의 초빙활용 확대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과총은 과학기술인의 결의문을 청와대, 과기처 등 정부부처와 국회각 정당 등 관련기관에 보내 5백만 과학기술인의 다짐과 호소가 국가정책 수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무장관(제1)실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의 결의가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회신을 보내 왔다. ①7

'97학술회의 환경과학워크숍 성황 2백여명 참석...이틀동안 논문14편 발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崔亨燮)는 9월 10~11일까지 2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97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환경과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과학기술의 교류로 산업기술의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술토론회와 정보교환을 통한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과총이 주최하고 한국수질보전학회와 한국수자원학

회 주관, 과학기술처·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학회,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워크숍은 첫날인 9월 10일은 「수자원 확보 및 이용」, 「수질관리 I」 등을 과제로 이광만과장(한국수자원공사 조사계획처)의 “물수지 분석을 위한 대규모 저수지시스

템 해석” 등 7편의 논문발표와 종합토론회, 둘째날 9월11일은 「수질관리 II」, 「수처리기술」 등의 과제에서 김응호교수(홍익대 토목공학과)의 “마을 하수도 정비의 특성과 효율적 관리방안” 등 7편의 논문발표와 종합토론회가 있었다.



▲ '97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환경과학워크숍에 참석한 ALBERT MOLINAS교수(콜로라도주립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